



넉넉한 인심은 전통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제주동문재래시장은 추석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도민과 선물을 구입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고물가에 어려운 가게 상황이지만,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으로 마음이 향한다. 사진/김명선 주무관

제주도·교육청 주요 현안 질문 이어가

**제420회 임시회 개최
8~22일 15일간 열려
도정질문·교육행정질문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
주요 현안 질문 쏟아내**

8월 한 달 비회기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42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32명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나선다.

도정 질문은 지난 11일부터 13일

까지 21명의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은 지난 14일과 15일 11명의 의원이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도정질문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수소트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신성장 산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예술고 신설 및 전환, 특성화고의 일반고 추진, 교권 및 학생인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보고 및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등의 안전 심사가 올려져 있어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의원발의 조례 34건, 도지

사 제출 의안 91건, 교육감 제출 의안 15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월 이후 50여 일 만에 열리는 임시회이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년 차를 열어가는 첫 회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제주에서는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행정체제 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이초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논쟁들로 뜨거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제주대학교 관계자, 특수교육교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혁신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각종 이슈와 현안

에 대한 연찬과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포함해 조례안 등 안전처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15일 간 열릴 예정”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당면 현안을 점검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의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현안에 대한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10일부터 31일까지 제421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제421회 임시회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다.

지면안내

2~3

주요 이슈

4~5

생생 의정활동

6~10

도정·교육행정 질문

11

함께합시다

12

의회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 일률적 감액 부작용 우려”

제420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긴축재정으로 인한 내년도 예산의 일률적인 감액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8일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김경학 의장은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원보다 1500억 원이나 모자란 1조8500억 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도정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구조조정에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

김경학 의장 개회사 통해
“도정의 지출구조조정,
우선순위 정하는 지혜 필요”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실질적 보상 지원책 당부도

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어려움에 놓인 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생산지 표시와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

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청정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 주시길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권과 학습권은 견제의 대상이나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때 비로소 교육환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APEC 제주 유치를 위한 도민 관심 제고 등을 당부했다.



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8월23일 정기회의 개최
전문가 참여 토론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남원읍)는 지난달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통해 의

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김애숙 사무처장, 박순종 한양대 겸임교수, 김수연 제주대 교수, 김은주 제주대 교수, 임익상 연세대 객원 교수, 진정구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박순종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원에 대한 불신임의결 제도, 징계 확정 전 직무정지 의결제도, 징계 세부 기준안 제

시, 징계 권고 결의 등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교섭단체별 내부 징계 기준 제시나 윤리관련 교육 필수 이수, 의정활동 정보 공개범위 확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강화 등을 통해 엄격한 의원 윤리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수연 제주대 교수와 김은주 제주대 교수, 임익상 연세대 객원교수, 진정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지정 토론에 나섰다.

송영훈 위원장은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변 어려운 이웃 살피는 도의회 되겠다”

사회복지주간 맞이해
복지 최일선 현장 찾아
봉사 참여 등 소통 행보
사회복지 의미 되새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회복지주간을 맞이해 사회복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쳤다. 매년 9월7일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로, 이날부터 일주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고 있다.

그 일정의 처음은 지난 7일 제주시 화북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분야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고승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 감축의 최소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처우 개선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에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미애)를 방문해 경로식당 급식봉사에 직접 참여했다.

이 날 김경학 의장은 아라종합사회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직접 배식하는 한편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끝난 뒤에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및 함께 봉사에 나섰던 한빛라이온스클럽(회장 양주연) 봉사자, 전재구 아라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아라파출소(소장 김희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회복지 현장 방문은 14일에도 이어졌다. 김경학 의장은 서귀포시 장애인회관을 방문해 서귀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장애인 단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보철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과 박향란 서귀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개선 사항등을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시 장애인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단체 상근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청했다.

김경학 의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확대, 교육 및 문화 접근성 향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돌봄사업 확대 등 장애인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회와 행정에서 지혜를 모아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정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동참

지난달 25일 열린 소비 촉진 행사 참여
오염수 방류 대응 일환...“큰 도움 되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제주MBC 마당에서 펼쳐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하며 제주산 수산물 시식과 소비를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MBC가 한림수협과 협업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8월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경학 의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돼 어업인들과 수산물 도·소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제주 수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제주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교사 보호협의체 구성 제안

도의회, 8월24일 좌담회서
교육활동 보호책으로 제시

지난달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최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과의

좌담회’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요구에 따른 특수교육 교사 교육활동보호협의체 구성이 제시됐다.

이날 좌담회에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이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 또한 “특수교육 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인해 이해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 우려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수교육 교사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권이 회복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관광 활성화 ‘머리 맞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지난달 관광 활성화 모색 간담회 열어

제주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관광 업계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광진흥기금 용자금 상환기간 유예 연장과 코로나 이후 관광종사자 급감에 따른 인력확보 필요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지난달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업계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재개에 따른 업계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아 위원장이 간담회 좌장을 맡고, 강인철 제주관광협회 회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20여명의 분과위원장등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한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금 상환기간 유예 연장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및 지하수원수 대금 감면 요청과 주요 관광지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보, 코로나 이후 관광종사자 급감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한 관광인력 양성 등을 주문했다. 제주와 도쿄간 직항 노선 개설과 크루즈 입항시간의 단축, 크루즈 입항 승객수송을 위한 차량 주차 공간 확대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도내 숙박업소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기준 적용 개선 및 감면 요청 △외국인 단기 체류객 운전 허용 △부가세 면세 지역 지정 등의 주문도 나왔다.

이승아 위원장은 “제주 국내관광객 수요 감소는 관광업 종사자 및 사업체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내·외국인 시장의 차별화 전략과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질적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역사 왜곡, 조례로 대응한다

4·3특위, 조례제정 좌담회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견입동)는 지난달 3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역사왜곡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대응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5회 4·3정담회: 제주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주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안’은 4·3역사 왜곡 행위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비

용 지원, 법률 자문, 역사왜곡행위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주의 경우 민간 지원 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제주도 소속의 법률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권 위원장은 “4·3역사왜곡 행위는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진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본 조례를 준비했다”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법적 소송 등을 수행해야 하는 4·3희생자유족회 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4·3역사왜곡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발전 방향 모색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일 관계자 정책간담회

당면 현안 개선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이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고, 임재경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혁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로 인해 거주 이용자가 퇴소해야 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폐쇄된 장애인 거주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 보호 문제, 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대기 상황,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운영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미 위원장은 “장애인의 인권과 알맞은 정책 변화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역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 할 지라도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 한 명의 장애인도 돌봄에 누락 없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 효율적인 개선책 시급

도시·교통문제연구회 7일

개선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비효율 노선 개편 등 주문

제주에서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면서도 대중 교통 수단 분담률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도·교통문제연구회(대표의원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가 지난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인트랜 조항웅 대표는 ‘버스 준공영제 및 개선방안’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해 대중

교통의 고정적인 노선에서 벗어나 수요 및 시간대별로 유동성을 고려한 제주지역 맞춤형 버스 도입을 주문했다. 또한 급행버스 도입과 더불어 첨두시(오전 7~9시)에 배차 간격을 조정함에 따른 운영 효율화를 높일 것을 제시했다.

조항웅 대표는 “비효율 노선 개편 및 첨두시 운행 횟수 증가에 따른 첨두시 배차 간격 개선은 첨두시 평균 37분에서 28분으로 9분 단축한 24.3%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승의 대대적인 개선과 버스 운행 자료의 체계적인 구축 등을 제언했다.

양경호 대표의원은 “우리 도민이 납득할 만한 대중교통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단순 돈 먹는 하마인 버스 준공영제가 아닌 돈이 들더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모색 적극 나서야

미래환경특위, 지난 1일
개발공사·제주대 공동포럼
플라스틱 화학 분해 및
수열에너지 시스템 등 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영돈) 공동주최로 지난 1일 호텔난타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관계 전문가들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모색에 나섰다.

목영선 제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제주 폐플라스틱 완전 순환 기술 개발’ 주제 발표에 나서 “현재 연구를 통해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한 후,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탄소중립 및 플라스틱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진 토론에서 신우석 제주연구원 박사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분해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인 게 아쉽다”며 “열분해 방법으로 보완하여 다양한 폐플라스틱 종류를 처리할 수 있는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허재혁 박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 분야에 치중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제는 열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국산화 기술 개발과 실증 사이트 구축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강병찬 제주에너지공사 지역에너지연구센터장은 “제주의 현안문제인 출력제한을 수열에너지와 연계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열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공감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이날 포럼 개최사를 통해 “탈플라스틱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특히 수열에너지 활용에 대한 고민으로 포럼을 열게 됐다”고 밝히는 한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한편 이날 각 주제별 좌장으로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맡아 진행했다.

제주사회적경제포럼 대표 이남근 의원 선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은 지난달 23일 임시총회를 개최, 대표의원에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부대표 의원에 김경미(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의원을 선출했다.

이남근 대표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현장소통을 통해 도내 사회적 경제가 한단계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 신임 대표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이 지난 15일 2023년 정기총회를 갖고, 대표에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부대표에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을 선출했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우리 모든 참여 의원님들과 뜻을 잘 모아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양 행정시 예산편성 현황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비와 지방교부세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입의 감소로 도의 예산편성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행정시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양 행정시장을 접견해 2024년 주요투자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청취하고, 예산 및 세무 업무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양용만 위원장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행정시의 예산은 도민과 가장 가깝고 직접 체감되는 만큼 더욱 세심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학부모 적극적 소통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는 지난 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발전연구회 소속 의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제주교육발전연구회 7일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 현장 목소리 공유

고의숙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할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제

는 더 이상 손을 놓을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는 교육주체의 숙의와 공감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학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부모회를 거쳐 소통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제주학부모총연합회장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기보다 민원인이라는 인식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제도와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경윤 전교조제주지부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규칙과 시스템 제정 등을 강조했다.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가운데,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진행됐다. 11일에는 양경호·고태민·오승식·한동수·원화자·현기종·양영식 의원이, 12일에는 강연호·이남근·강철남·이경심·임정은·정민구·정이운 의원이, 13일에는 한권·현지홍·양홍식·김대진·현길호·이상봉·송영훈 의원이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자세한 도정질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보기

도민의 항공 수요를 위한 향후 방향은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



▲제주브랜드로 운영하는 제주항공의 도내에서의 역할은. 제주시민의 항공수요를 위한 도정의 역할 및 향후 방향은.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대한 실행 방안은. 대중교통체계에서 트램의 역할 및 활용방안은. 노형오거리 입체화 및 원형육교 추진에 대한 견해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자 처우개선 계획은.

탐라해상풍력단지 지구 지정 변경 논란 견해는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관련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지구 지정을 변경한 특혜 논란과 견해는.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이 시행중으로 용역 완료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공공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을 이용자에게 부과징수를 추진하는데 도지사의 신념은.

교육 협력 사업 확대 방안은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도정 단독사업 또는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확대 방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아동발견 및 신고방법 등의 지역주민 홍보·교육 방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상담·조사 능력 개발 및 증원, 피해아동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에 대한 견해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은.

부동산 자산 격차 완화 방안은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제주지역 공공요금 관련 견해는. 글로컬 30,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는. 부동산 자산 격차에 따른 완화 방안은. 어린이집 폐원 증가에 따른 대책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은. 천원의 아침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은.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은.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 연구 미흡에 대한 견해는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읍면동장 직선제 등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 연구 미흡에 관한 견해는. 도민사회 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일정 조정 등에 대한 견해는. 고령화 시대 노인보호구역 등 노인교통안전시설 확충 계획은. 신장장애인 복지증진 향상 방안은. 도내 우수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행정체제 개편을 서두른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



▲행정체제 개편을 모색하게 된 현 체제의 문제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 '제주형'의 의미는. 행정체제 개편을 서두른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주는 제약에 대한 입장은. 대중교통체계에서 트램과 버스의 역할 및 활용 방안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갈등 해결 방안은.

글로벌 해양 관광 활성화 방안은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지속가능한 제주관광과 관련해 크루즈 관광 등 글로벌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은. 저가단체관광 대책 마련은. 관광업계 양극화와 인력수급 해소방안은.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보완에 대한 견해는. 도내 보행환경 실태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등 개선방안은. 인구절벽시대에 생활인구증가 정책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의 견해는.

도내 주택 고분양가 관련 견해는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K4축구단 창단·운영 제안에 관한 견해는. 도내 미분양주택 증가 원인과 해소 방안은. 고분양가 주택에 대한 도지사 견해는. 민선8기 공약인 상장기업 유치 및 추진 현황은. 상장기업 육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운영 계획 및 로드맵은.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방안 마련은.

장애인 거주시설 확대 및 인권유린 대책은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장애인거주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및 공공성 강화 방안은.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은.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의 정책 지원 방안은. 지난해 인권팀 운영 관련 지적 이후 개선 방안은.

제주 중장년 복지정책 확대 방안은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40대를 위한 복지 정책 발굴에 대한 계획은. 중장년-노인 연계 시설 확충에 대한 견해는. 과소동 통폐합과 15분 도시 및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의 관계는. 신성장사업의 산업화와 관련해 도심항공교통, 민간중심 우주산업 등이 도내 산업으로 육성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민선8기 공약 중 문화분야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은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개시에 따른 대응 방안은.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은. APEC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도정의 전략 및 준비 사항은. 도정의 신성장사업 추진과 관련한 인력 양성 방안은. 농업용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과 관련한 입장은.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방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입장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등 연구용역에 대해 도민사회 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견해는. 연구용역 완료 이후의 추진 계획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견해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T/F팀 구성·활동사항 및 향후 계획은. 저출산, 청년 인구유출, 지역간 인구 격차에 따른 인구 정책 마련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개시에 따른 대응 방안은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원전 오염수 방류개시에 따른 입장은.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준비 상황 및 오·폐수 처리 계획은.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중문관광단지 매각 진행상황은. 1인 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대책은. 제주 감귤가공사업의 현주소 및 발전 방안은. 농업인력난 해소 방안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추진 방안 마련은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사전 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추진 상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 해소 대책은. 도민 대상 외국어 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은. 지방공무원 외국어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한 견해는. 도교육청과 도청 산하 공공도서관 연계 강화에 대한 입장은. 서귀포시 야간 관광축제 활성화 방안은.

「민선 8기 출범 1년 성과 견해는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그린수소, 수소트램 등 신산업 육성 전략 진행 상황은. 재정 긴축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계획은. 15분도시 추진 문제점 및 과소동 통폐합 등 정책 추진은.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행정수요의 다변화·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설계 방안은. 통계 기반 정책 설계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견해는.

「전기차 충전기 구축후 사후관리 방안은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40 플라스틱 없는 섬'과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정책과의 연계성은. '플라스틱 제로'의 의미와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사업 추진 성과는. 전기차 충전기 구축 후 사후 관리 방안은. 아동건강체험비 한시적 지원 이후의 계획은.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견해는. 무더위쉼터 관리 및 폭염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제주산 수산물 판로 확대 방안은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전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피해 및 안전관리 정책 시행에 따른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은.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업체의 지원방안은. 제주산 수산물 국내·외 판로 확대 방안은. 국제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해녀물질공연장 활성화 방안은. 제주말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은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전문성이 발휘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은. 서귀포시 콤팩트 시티를 위한 추진 내용 및 성과는. 성공적 콤팩트 시티와 15분 도시를 위한 추진 방향은. 학생 등·하교 버스 배정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및 불편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은. 동홍동119센터 신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실효성 있는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은.

「신성장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의 도입방향 및 최우선 가치는. 제주 북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수소 등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그린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는. 용암해수를 활용한 청정소금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는. 농지전용 허가 관련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은.

「노동존중 제주실현 정책 추진 입장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강화에 대한 견해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추진 방안은. 노동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제주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은. 공공형실내놀이터 추진 계획은.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안전을 위한 관련 사항 건측허가 도입 견해는.

「제주 1차산업에 대한 견해 및 정책 방향은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코로나19 이후 감소하고 있던 제주1차 산업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1차 산업에 대한 견해 및 향후 1차 산업 정책 추진 방향은.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구성 및 활동 등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감귤 적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견해와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가공용 감귤 수매 필요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청탁금지법」이 달라졌습니다!

①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변경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

*선물가액이 상향되는 추석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②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기존 물품만 가능 → 변경 물품+물품·용역상품권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가운데, 14일과 15일 양일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됐다. 14일에는 임정은·김경미·강철남·김창식·강충룡·박두화 의원이, 15일에는 김기환·강하영·현길호·김승준·이승아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갔다. 자세한 교육행정질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보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은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충분하고 실행 가능한지. 저연차 교사들의 기피업무 배정에 대한 대책은. 교사 외 교직원들의 치료지원 대책 강화 방안은. 혼육 시 즉시 분리에 대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방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도서관 역할 강화 방안은. 서귀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대한 견해는. 국제학교 매각 추진에 따른 교육청의 역할 및 입장은.

교육시설 BF인증 확대 방안은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위해 다목적강당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교육시설 BF인증 확보 계획은. 제주시 동부지역 복합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관한 견해는. 유·보통합 시행 예정에 따른 교육청 업무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추진 사항은. 대안학교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는.

교육 공론화 추진 상황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



▲역대 교육 공론화 운영 성과 점검은 됐는지.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공론화 추진 점검 상황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 대책에 대한 견해는.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견해는. 학생 비만 관리 현황 점검 및 시책 사항은. 학교 스포츠 활동 활성화 연계 방안은. 전통문화 계승 국악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견해는.

직업계고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직업계고 관련해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는. 제주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추진 방안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모집 등 활성화 방안은. 정책연구용역 실시 및 결과에 따른 활용 방안은. 학생 선수 도외 유출에 따른 대안은. 학교 체육전문 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는. 서부지역 '유아교육 체험을 위한 기관' 설치 제안에 대한 견해는.

실질적인 교육활동보호 방안은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학교·교사·학부모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활동보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조례'로 통합해 개정할 의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추진상황은. 효돈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 추진 상황은. 학교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은. 폐교 활용 방안은. 초등 학교 축구부 양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교권 보호 대책 방안은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학교 외 도교육청 차원의 관련 민원 전담팀 설치 운영에 대한 견해는. 도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은. 도내 학생들의 놀이 문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학생아르바이트 인권 강화 방안은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학교 독도교육의 학생 참여 교육성과 교원 연수 등 추진 상황은. 독도체험관의 연도별 이용객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은. 학교 통일교육의 학생 참여 교육성과 교원 연수 등 추진 상황은. 학생 인터넷 도박중독 실태 및 예방 대책은. 자전거 이용 통학 실태 점검 및 편의시설 현황은. 학생아르바이트 노동 인권 강화 강화 방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증진을 위한 견해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입을 위한 대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대책은. 특별휴가 신설 제안에 대한 견해는. 다문화가정학생 증가에 따른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설치 등 강화 방안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제주국제교육원의 역할 강화에 대한 입장은. 학생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내 해양교육 관련 교육시설 설치 제안에 따른 견해는.

「폐교 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은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미활용되고 있는 교육청 폐교 재산에 대한 활용 촉진 대책은. 추자도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추진 경과는.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견해는. 통학권 개선을 위한 학생순환통학버스 운영 제안에 대한 입장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정서행동강사 확대 방안은. 통합 운영학교에 대한 특화사업 추진 현황은.

「정신건강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에 대한 집중 대책은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학생 자살예방 대책으로 정신건강고위험군에 대한 대안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방안은. 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교육청 입장과 대안은. 1인 1악기 교육 확대 방안은. 외부인 학교 무단출입 사건에 대해 제주교육의 안전 대책은. 제주 치안협의회의 교육청 및 교육감의 역할은. 오등봉학교 신설 추진 상황은.

「장애학생 배치를 위한 특수학급 증설 대책은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장애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한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한 견해는. 중학교 특수학급 부족으로 원거리 학생 배치 문제 해결 방안은. 돌봄전담인력 복리후생 문제 해결 방안은. 드림노트북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은. 학교 석·급식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은.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후 부지 활용 방안은. 교육 균형발전 차원 서귀포시 학생 지원 대책은.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 당사자 간
신뢰와 존중 우선되기를”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는 미소 짓는 얼굴로 교실을 채우는 모습일 것이다. 학생들의 미소와 즐거움은 교사의 행복으로부터 비롯된다.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는 교육 현장에서 높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교육의 가치가 약화되고, 학교 현장이 개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은 학생, 교사, 보호자인 교육의 3주체가 함께하며, 서로의 존중을 바탕으로 교육이념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도 교육과 교육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의 책무와 권리를 각각 담고 있다.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학습자로서의 학교 규칙 준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보호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와 그에 따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 조례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상위법(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은 7개 지역,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유무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보호자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당사자에

대한 권리만 나열되어 있을 뿐, 책임에 대한 사항은 미흡하다.

또한, 최근 사건 발생으로 이야기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서학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생활지도에 범위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자로서 법과 제도개선보다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당사자 간 신뢰와 존중이 우선되는 교육문화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그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들이 행복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빛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답인가

이창욱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수거보상제 등 노력 불구
불법 현수막 게시 여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필요”

최근 불법 광고물을 보면 분양 및 헬스장 현수막이 대부분이다.

불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가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긍정적 효과인 홍보보다 사회적인 손해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해봐야 한다.

광고물은 애드벌룬, 현수막, 벽보 등 16종류가 있는데 이 중 주로 불법 게시되는 것이 현수막과 벽보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협회로 신고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거나, 벽보는 열린시민 게시대를 이용해

별도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음에도 원하는 위치와 날짜에 게시하기 어려워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수거보상제와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을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벽보 1장당 30원, 전단 1장당 10원을 월 1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200여개의 다른 번

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법 현수막은 보란 듯 게시되고 있다. 즉, 불법현수막 근절은 과태료 처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과태료뿐 아니라 행정도 광고물 게시자가 원하는 위치와 날짜에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인식을 바꿔 적법한 절차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광고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밥주리 밥디강

김현국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장



“쓰지 않으면 사라져
우리 도서관에서
제주어 산책 어떨까요”

오늘날 7000여개의 언어가 쓰이는데, 금세기 안에 70%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23개 언어 이용자가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10명 미만이 쓰는 언어도 많다.

제주어는 유네스코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재됐다. 제주어 원어민은 5000~1만명 정도로 도민 100명당 1명이 쓴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그마저 제주어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1%도 안 쓴다.

제주어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반

말 어미와 일부 특정 어휘를 제외하면 전멸해 사실상 표준 한국어와 거의 같다.

특히 제주시 도심권, 외래인 유입이 많은 곳에서 제주어 소멸 현상이 두드러지며 서비스 업종에서는 제주어가 거의 사라졌고, 산북보다 산남에서 그나마 더 쓰인다.

코로나 종료 후 월례 직원 조회 마지막에 제주의 노래를 제주어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어색함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이만큼의

미 있는 사업도 보기 쉽지 않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제주어로 노래를 부를까.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언어다. 문명의 발달은 언어의 말살을 가속화하고, 기후 위기는 섬을 가라앉혀 주민들은 육지로 이동해 많은 언어가 사라질 것이다.

밥주리 재열 본디 오래 됐수다(잠자리 매미 본 지가 오래 됐습니다). 어디 가서 볼 수도, 쓸 수도 없는 우리 제주어. 우리 도서관 제주어 코너에서 제주어 산책 어떨까.



“좋은 일이 생기길”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린 삼양검은모래해변 하늘 위로 오색 빛 선명한 쌍무지개가 걸렸다. 쌍무지개는 희망과 행운을 의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징조로 여긴다. 지친 일상을 위로하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본다. 사진/김성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부회장

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우수상 1건·장려상 1건 정책 수립에 활용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1일 ‘2023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에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지역경제, 관광·복지·환경 등 각종 분야에서 5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실무부서 검토를 통해 최종 심사 대상 11건을 선정했으며 이후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등의 기준으로 제안들을 심사한

결과 우수상과 장려상에 각각 1건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제주 거주 이동민씨의 ‘AI미디어를 활용한 제주 관광 세계화 전략’이, 장려상에는 인천 거주 남상우씨의 ‘보육 교사 자격증 어린이집 출입구 제시’ 주제 아이디어가 뽑혔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민은 물론 도외에서도 제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입법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6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4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수상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나는 공연에 에너지 충전

낭그늘 힐링콘서트 1일 도민카페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감·소통의 날 일환으로 ‘낭그늘 힐링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진 무대는 제주대학교 기타동호회 ‘지호락’이 첫 무대로 꾸려졌다.

이어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총무담당관 나필숙씨의 노래, 도의회 기타동호회인 ‘달빛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김경학 의장은 “공연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희 사무관 승진 임용

도의회 4일 임용장 수여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4일 의장 집무실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강동희 사무관 승진 의결자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강동희 사무관은 지난 7월 이뤄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정책



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을 수료해 이날 승진 임용장을 받았다.

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장에 승진 의결됐으며, 지난 7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6주간 진행된 지방